

삼신인과 세 공주의 인연

탐라국의 시조인 삼신인이 벽랑국 세 공주와 인연을 맺은 연못인 혼인지. 이 인연이 제주의 오늘을 만드는 시작이었다.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에서 펼쳐지는 신화 속의 아름다운 만남을 상상해 보자.



혼인지로 |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617-16 ~ 성산읍 온평리 1785(약 1.1km)

온평포구로 |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472-1 ~ 성산읍 온평리 1068-6(약 0.7km)

온평애향로 |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550-2 ~ 성산읍 온평리 1001-6(약 0.7km)

환해장성로 |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154-8 ~ 성산읍 고성리 507-29(약 9.5km)

섭지코지로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490-2 ~ 성산읍 고성리 62(약 2.6km)

남고로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749-1 ~ 성산읍 남산리 1505-1(약 5.6km)

신양로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839-7 ~ 성산읍 고성리 206-13(약 1.2km)

혼인지로 | 혼인지



혼인지

혼인지는 삼성혈과 함께 탐라국 시조의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삼성신화에 등장하는 탐라국의 시조 고·양·부 삼신인은 온평포구에서 벽랑국의 세 공주를 만난다. 이들이 혼인을 한 장소를 혼인지(婚姻池)라고 한다. **혼인지로**는 바로 이 혼인지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삼성신화에는 삼신인과 벽랑국 세 공주가 혼인을 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삼성혈에서 솟아난 삼신인이 사냥을 하면서 생활하다 어느 날 동쪽 바닷가로 떠밀려온 나무함을 발견했다. 나무함을 열어보니 그 속에는 송아지와 망아지, 오곡의 씨앗, 그리고 벽랑국에서 온 세 명의 공주가 있었다. 삼신인과 세 공주는 혼인지로 와서 목욕재계를 하고 각각 짝을 지어 혼인을 했다. 그리고 혼인지 옆에 있던 동굴에서 첫날밤을 보냈다. 이때 공주들이 목욕한 곳을 신녀탕이라 하고, 삼신인과 벽랑국 세 공주가 첫날밤을 보낸 곳을 신방굴이라 부른다. 신기하게도 이 굴은 세 개의 방과 같은 구조였다고 한다. 그 후 이들은 물 좋고 기름진 땅을 골라 터전을 마련하여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 이야기는 수렵 생활을 하던 삼신인이 외부에서 온 세력을 받아들여 비로소 농경사회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삼신인과 세 공주가 인연을 맺었던 혼인지는 탐라왕국의 시작을 함께한 의미 있는 장소인 것이다. 마을에서는 매년 11월 경에 혼인지 축제를 개최해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있다.

온평포구로/온평애향로 | 온평포구

온평포구로는 온평마을의 포구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온평리에는 삼성신화와 관련한 지명이 여러 곳에 남아있다. 그 중 채성개는 함이 떠내려 오는 것을 발견한 삼신인이 채성을 질렀다고 하는 곳이다. 이곳은 연혼포라고 불리다 오늘날 온평포구가 되었다. 이곳에는 벽랑국 삼공주가 해안에 닿을 때 황금빛 노을이 지고 있었다고 해서 황루알이라 부르는 곳과, 배에서 말이 해안에 첫발을 내딛어 생긴 말발굽 자국 등이 전해오고 있다.

혼인지에서 온평포구까지 가려면 온평리 마을 중심에 나 있는 여러 길들을 지나야 한

다. 그 중 온평초등학교에서 온평포구로 이어지는 온평애향로는 인근에 애향탑이 있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애향탑 옆에는 백년해로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두 나무가 100년이 넘게 함께 자라고 있어 백년해로나무라고 불린다. 마을에서는 이 나무 덕분에 부부의 금슬이 좋아진다고 믿었다. 이 나무에 기도를 하면 자식을 얻는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환해장성로 | 환해장성

환해장성로는 신산리와 온평리, 고성리의 해안가를 지나는 해안도로이다. 왜적을 막기 위해 제주도의 해안가에 돌아가며 쌓은 성벽인 환해장성을 상징하는 뜻으로 환해장성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환해장성의 역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도에서 머물던 삼별초가 제주로 향하자 제주를 지키던 관군들이 삼별초가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안가에 성을 쌓기 시작했다. 하지만 삼별초는 관군을 물리치고 제주에 들어와 항파두리성을 쌓으면서 여몽연합군에 대항할 교두보를 마련한다. 그러자 상황이 바뀌어 이번에는 고려군을 막기 위해 삼별초군이 환해장성을 쌓아나갔다. 이렇게 제주의 해안선을 따라 쌓은 성벽은 조선시대 들어서는 해안을 침입해 노략질을 일삼는 왜적들을 막는데 활용되었다.



환해장성

조선시대 제주에 안무사로 온 김상헌은 환해장성을 일러 ‘탐라의 만리장성’이라 부르기도 했다. 온평리를 비롯해서 제주의 해안가 마을인 행원리, 한동리, 동북리, 북촌리, 애월리, 고내리 등에는 환해장성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섬지코지로 | 섬지코지

섬지코지로는 섬지코지를 상징하는 길이다. 섬지코지는 좁은 땅이란 뜻의 ‘섬지’와 바다를 향해 돌출된 곳이라는 뜻의 ‘코지’가 합쳐진 제주어 명칭이다. 이곳은 제주의 동쪽 바다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연대를 설치해 해안을 감시했다. 지금은 위험을 알려주는 등대가 있어 이곳을 지나는 배들의 안전을 지켜준다. 등대 앞 바다에는 높이가 30m에 이르는 바



섬지코지

위가 솟아있는데, 선돌 또는 선녀바위라고 부른다. 이 바위에는 용궁의 왕자가 목욕을 하러 내려온 선녀들의 미모에 반해 선녀들을 쫓아가다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 돌이 되고 말았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드라마 <울인>의 촬영지로 잘 알려졌던 섬지코지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휘닉스아일랜드에 세워진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을 보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난고로/신양로 | 대수산봉과 소수산봉

난고로는 난산리와 고성리를 잇는 길이다. 난고로 인근에는 대수산봉이 자리하고 있다. 원래 물메라고 부르던 것이 동쪽에 이웃한 작은물메(小水山峰)와 구별하여 큰물메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한자로 표기하면서 대수산봉(大水山峰)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대수산봉 정상에는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었다. 북동쪽으로는 성산봉수, 남서쪽으로는 독자봉수와 교신 했었다고 한다. 과거 이 오름에는 샘물이 있었는데 호종단이 수맥을 끊어버려 물이 말라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대수산봉과 짝을 이루는 소수산봉은 대수산봉의 동쪽 신양리의 중심도로인 신양로 인근에 있다. 소수산봉은 비교적 작은 오름으로 사람들은 봉우리 형태가 달걀을 닮았다고 해서 제주어로 독새기오름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 오름에는 고성리의 효자 홍달한의 묘가 있다. 홍달한은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것으로 소문난 효자였다. 효심이 지극해 부모님의 변의 맛을 보며 건강을 확인할 정도였다고 한다. 나라에서는 그의 효심을 높이 사 효자비를 내려 그를 기리게 했다.

대수산봉과 소수산봉의 서쪽 넓은 평야지대는 고려시대 원나라의 목장이 있던 수산평이라는 곳이다. 이곳에 말들을 관리하는 동아막을 설치하고 원나라 목호들이 거주하면서

좋은 말들을 키웠다. 원나라가 제주를 직접 지배하는 근 100년 가까이 목장이 이어졌고, 훗날 제주가 말을 대표하는 고장이 되는 기반이 되었다.

